에콰도르 식품산업현황

김 승 준 *

1. 국가 개황

1.1. 일반 현황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a del Ecuador)은 남미대륙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1.3배인 28만 3,561km^{2}이다. 에콰도르는 동부 아마존(Oriente), 서부 해안(Costa), 갈라파고스 제도, 중부 산악지대(Sierra)의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행정구역 상 24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에콰도르는 크게 3개의 기후대로 구분되는데, 태평양 연안 저지대의 연평균기온은 25~31℃, 연평균 강우량은 2,500~3,000mm으로 고온다습하며, 중부 산악 고지대는 온난하여 연평균 기온 13℃~18℃, 700~1,500mm의 강우량을 보인다. 밀림지역인 동부 아마존은 연평균기온 23-32℃, 연평균 강우량 3,000~4,000mm이다. 세부적으로는 21개의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하며 11~4월이 우기이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에콰도르는 전 세계 식물 중 10%, 조류 중 18%가 서식하고 있으며, 26개의 환경 보존 구역과 국립공원이 전 국토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728만 명으로 연평균 약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26.9세이다(외교부 2019). 인종 구성은 메스티소가 71.9%로 다수를 차지하며, 인디오 7.0%, 흑인 7.2%, 유럽계 6.1%, 기타 7.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주변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주민의 대부분은 가톨릭신자이다.

* 사단법인 국제농산업개발원 국제개발협력실장 (kimseungjun16@gmail.com).

<그림1> 에콰도르 지도

자료: 외교부(2019).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 키토(Quito)는 1534년 스페인 식민도시로 건설되어 현재 인구 2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미의 가장 오래된 수도로 대통령 궁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다.[1] 에콰도르의 주요도시는 수도 키토와 과야킬(Guayaquil), 쿠엔카(Cuenca)로 이 중 에콰도르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과야킬은 태평양에 인접한 항구도시로 무역업이 발달하였고 수산업과 바나나 생산의 중심지이다. 한편, 에콰도르 남부 안데스 산맥 계곡에 위치한 쿠엔카[2]는 문화, 예술 등이 발달하여 '에콰도르의 아테네'로 불리며,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헌법상 국가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 선거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외교부 2019). 현 대통령은 레닌 모레노(Lenin Moreno)로 2007년부터 10여 년간 통치해 온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와 같은 정당

1) 잉카문명의 잔해 위에 세워졌으며, 옛 도시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2) 스페인의 계획 식민도시로 르네상스식 도시계획을 남미국가에 접목한 사례임. 구시가지 건축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출신이다. 그러나 정부 각계의 전 대통령 인맥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군부를 장악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한편, 모레노 행정부는 전 정권의 유사인 대규모 국가 부채,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민간투자의 부족과 높은 실업률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유류보조금 폐지 등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반대하여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도로 점거·강도·상점 약탈 등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확산되었고,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10월 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0월 13일 정부와 원주민 측 간 대화에 의해 시위의 중단이 합의된 이후, 국가비상사태는 11월 3일 부로 종료되었다.

에콰도르는 계층별, 지역별 빈부격차로 높은 국가로 2000년대에는 지니계수가 0.6으로 매우 높았으나, 2017년에는 0.4로 다소 완화되었다. 국가 전체인구의 25%가 빈곤층이며 극빈층은 9%이다. 빈곤층은 주로 카르치(Carchi), 볼리바르(Bolivar), 침보라소(Chimborazo), 피친차(Pichincha), 아마조니아(Amazonia), 로사(Loja) 등 아마존 지역, 중북부 해안, 중남부 고원에 집중되어 있다(외교부 2019).

1.2. 경제 현황

1.2.1. 경제 일반

에콰도르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중남미 33개국 중 7위 수준이며, 1인당 GDP는 2018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1만 1,898달러이다.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 경제로 1950년대까지 태평양 해안가에서 주로 카카오를 재배하여 수출하였고, 이후 바나나가 주력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새우 등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업의 GDP 기여도는 6.7%에 불과하지만,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업은 전체 수출액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OPEC 회원국으로 1967년 동부지역의 대규모 유전 발견 이후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원유 생산을 시작했는데, 원유매장량은 88억 3,000만 배럴(2016)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3위이며, 일일 평균생산량은 52만 배럴(2018)로 남미 5위이다.

<표 1> 에콰도르 대내 경제 현황

주요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예상)
인구	백만 명	16.4	16.6	16.9	17.1
명목GDP	십억 달러	100.4	103.1	107.0	110.9
1인당 명목GDP	달러	6,077	6,199	6,343	6,483
실질성장률	%	−1.5	3.0	1.3	1.8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0.4	−0.2	2.0
실업률	%	5.2	5.7	5.2	6.0
재정수지(GDP대비)	%	−7.5	−3.4	−4.8	−2.1
정부채무/GDP	%	37.2	39.0	42.7	−

자료: KOTRA(2019).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 가운데 출범한 코레아 정부(2007−2017)는 확장적 거시정책, 서민·근로자 지원, 에너지·자원 개발의 국가주도, 국내 제조업 육성, 신자유주의 배격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에콰도르 역사 상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 발전전략인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l Desarrollo)을 수립하여 공공투자 및 사회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개선 및 의무 채용,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 빈곤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석유와 농산물 등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 공항, 항만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였으나, 제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끌어올려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 에콰도르 대외 경제 현황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총수출	백만 달러	18,267	16,797	19,122	22,800
총수입	백만 달러	−20,973	−15,550	−19,844	−23,900
무역수지	백만 달러	−2,706	1,247	−722	−1,100
경상수지	백만 달러	−2,114	1,435	−300	1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8	0.9	1.2	1.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7.1	7.4	6.0	−
총 외채잔액	백만 달러	29,156	35,951	39,162	43,447
총 외채잔액/GDP	%	29.1	36.8	39.7	43.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114	1,435	779	−1,523

자료: KOTRA(2019).

에콰도르는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 말의 극심한 금융위기로 2000년 1월부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미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물가 안정 및 소득 구매력 유지에는 성공하였으나,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국제유가의 하락과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에콰도르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수출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2016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에콰도르의 공공채무 또한 무분별한 차관으로 인해 2017년에는 GDP의 42%(419억 불)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7년 5월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경제부문에서 코레아 전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친시장적 자유주의 경제기조를 표방하였다. 모레노 행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경제정책 4대 기조로 △ 국가재정 정상화, △ 정부규모 축소, △ 국제수지 균형(수출 및 투자치 확대), △ 민간부문 생산 진흥을 천명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 외국인투자 유치, △ 통상관계 강화(수출증진), △ 관광산업 진흥, △ 에콰도르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4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주요지표	2014	2015	2016	2017
농업, 임업, 수렵, 수산업	38,928	67,818	41,780	124,422
상업	141,948	172,875	106,579	97,905
건설	4,278	6,834	29,768	56,033
전기, 가스 및 수도	−4,671	61,758	1,195	2,129
광산 및 채석	490,125	559,834	479,103	64,716
제조업	107,602	264,101	36,832	143,096
서비스(지역, 사회, 개인 대상)	14,072	−10,834	−10,095	−3,857
서비스업(기업 대상)	25,808	243,280	20,887	74,425
서비스업(운송, 창고, 통신)	−51,072	−43,628	37,994	47,555
총 계	766,452	1,322,038	744,041	606,425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에콰도르 경제는 2017년에는 국제유가 회복과 수출 호조로 인해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복 국면을 보이는 듯했으나 저성장 기조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지출 축소와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에콰도르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하였고, 2019년 또한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결국 2018년 2월 국제통화기금(IMF) 등 7개 국제기구와 102억불 금융지원에 합의하였다.

1.2.2. 주요 정책 및 규제 환경

정부는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생산, 무역 및 투자 기본법(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COPCI)」을 제정하였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높은 석유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생산, 무역 및 투자 기본법(COPCI)」에 따라 소득세를 낮추고, 신규 투자기업의 소득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화 촉진을 위한 정책 또한 실시하고 있다(KOTRA 2019).

에콰도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COPCI 24조 2항에 따라 기초산업[3]의 신규 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한편, 국경에 인접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시에는 12년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일정 지역을 특별관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 수입되는 물품들의 관세 및 세금면제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KOTRA 2019).

1.2.3. 수출입 동향

에콰도르는 WTO 가입국이자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 해당 무역규정에 적용받고 있다.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무역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FTA,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코레아 전 정부는 지역통합을 위한 UNASUR(남미국가연합), CELAC(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 등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보호무역

3) 제철, 구리, 알루미늄, 셀룰로오스, 석유화학, 조선업 등

정책을 강조하여 높은 수입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에콰도르는 전면적 무역협정으로 안데스공동체협정(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체결한바 있으며, 부분적 무역협정으로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과테말라,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와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쳤다(외교부 2019).

코레아 전 정부는 2012년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상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효하고, 2015년에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정권 교체 이후 모두 폐지되었다(KOTRA 2019). 최근의 정부정책은 경제적 실용주의와 개방주의 노선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거대경제권인 미국·EU와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가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여타 역내 외 국가들과도 양자투자·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통상투자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한국, 터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캐나다 및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투자협정 또는 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표 4> 에콰도르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6	2017	2018.7
총 계		16,797,666	19,122,455	12,580,401
1	석유와 역청유(원유)	5,053,937	6,189,823	4,549,701
2	새우	2,587,433	3,047,028	1,898,289
3	바나나	2,742,005	3,045,157	1,901,794
4	가공·저장 생선	896,344	1,158,153	725,103
5	절화와 꽃봉오리	802,461	881,461	543,170
6	석유와 역청유	380,805	722,230	573,748
7	카카오	621,970	589,750	279,688
8	팜유	228,150	208,274	149,805
9	금	261,864	167,576	99,676
10	어류전분	157,764	120,466	51,430

자료: USDA(2020).

<표 5> 에콰도르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6	2017	2018.7
총 계		16,188,692	19,844,960	12,966,758
1	정제유	1,336,400	1,688,117	1,300,901
2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972,449	1,171,040	886,582
3	승용차	480,657	929,669	656,089
4	의약품	717,184	738,344	432,592
5	석유가스와 탄화가스	300,042	469,495	295,491
6	전화기	375,377	423,190	297,883
7	화물차	186,508	337,934	263,750
8	오일-케이크	362,530	322,722	293,034
9	동물사료	197,393	294,151	179,128
10	밀과 메슬린	228,777	280,683	180,064

자료: USDA(2020).

에콰도르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원유 및 농수산물의 수출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비중이 크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crude oil)와 바나나, 양식새우, 참치, 절화, 커피, 카카오 등 대부분 1차 산업군에 속한다(KOTRA 2019). 특히, 에콰도르는 태국에 이어 2위의 가공참치 수출국으로 세계 가공참치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수입품 1, 2위는 정제유(refined oil)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지 못해 자동차, 컴퓨터, 전화기 등의 기계류 수입 비중이 높다. 또한 인프라 산업 및 건설업의 성장으로 관련 기계 및 차량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4)]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7.5%)과 페루(6.7%), 칠레(6.4%), 파나마(4.9%)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이 크다. 반면,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콜롬비아 등으로 2017년 기준 각각 전체수입액의 22.7%, 15.4%, 8.6%를 차지한다.

4)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2) (검색일: 2020.3.1.)

<표 6> 주요 수출입 대상국 및 교역규모(2018)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출대상 국가	수 출 액	순위	수입대상 국가	수 입 액
총 계		21,606,133	총 계		23,019,652
1	미국	6,671,509	1	미국	5,010,624
2	페루	1,615,108	2	중국	4,352,591
3	중국	1,494,317	3	콜롬비아	1,809,245
4	칠레	1,466,665	4	파나마	1,126,057
5	파나마	1,243,545	5	브라질	981,399
6	베트남	1,212,303	6	멕시코	804,307
7	러시아	837,849	7	페루	785,002
8	콜롬비아	832,530	8	한국	770,319
9	이탈리아	646,802	9	독일	597,829
10	스페인	582,050	10	일본	558,092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참고하여 저자 작성.[5)]

2. 식품산업 현황

2.1. 일반현황

식품가공 부문은 에콰도르 경제에서 가장 실적이 우수한 부문 중 하나로 전체 제조업의 GDP 기여도 중 약 45%에 해당한다. 에콰도르의 주요 가공식품은 육가공품과 새우가공품으로 2016년 기준 전체 GDP 기여분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성 음료와 분말가공품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가공식품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수산가공품으로 2016년 기준 GDP 기여도가 89.7%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식재료품, 새우가공품 등이 2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생수제품 생산액은 23.7% 감소하였으며, 코코아, 초콜릿 및 제과제품, 비알코올성 음료제품 등의 생산액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에콰도르에서 커피 가공품(1.7%) 및 코코아 가공품(1.6%)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에 비해 매우 낮으며 품질 경쟁력 또한 취약하다.

5)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ECU/Year/2018/TradeFlow/Export) (검색일: 2020.2.20.)

<표 7> 에콰도르 식품가공 및 식음료제품의 GDP 기여(2014-2016년)

단위: 백만 달러

품목별 분류	2014	2015	2016	2015-2016 (% 변화)
육가공 및 기타 부산물	980	847.9	923	8.8
새우가공품	1,014	721.0	903	25.2
수산가공품	163	148.3	281	89.7
생수제품	779	533.1	407	-23.7
유지류 제품	397	430.2	423	-1.8
낙농유제품	391	369.8	368	-0.4
분말제품	190	528.3	554	4.8
제빵제품	387	398.2	437	9.8
면류 및 파스타 제품	42	46.2	49	6.7
설탕 및 사탕수수 제품	118	125.5	142	13.3
코코아, 초콜릿 및 제과제품	100	104.1	98	-6.2
커피제품	72	100.9	103	1.7
식재료품	139	234.5	290	23.8
알콜성 음료제품	567	569.4	647	16.6
비알콜성 음료제품	322	352.7	337	-4.4
가공식품 전체 GDP	5,662	5,510.0	5,961.2	8.2

자료: USDA(2017).

에콰도르에는 1,018개의 식음료 제조업체가 있으며, 에콰도르 주요도시인 키토, 과야킬, 쿠엔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초소규모 기업이 4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은 28%, 중소기업 14%, 대기업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전체 식음료 매출액의 83%를 차지하는 대형 식음료 가공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축적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반면, 소형 가공업체들은 비효율적인 전통생산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

식품가공업체 중 생선 및 기타 가공어육제품은 전체 가공식품 판매액의 19.7%를 차지하며, 전체 104개 생산업체의 총 판매량은 21억 달러이다. 육류제품은 80개 업체가 13억 달러의 판매량을 기록해 총 판매량의 12.3%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물 및 식물성 유지제품은 37개 업체가 12억 달러의 판매량을 보여 총 판매량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식품가공 산업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에 힘입어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식품 원료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공 설탕, 농축 향료, 주스 농축액 및 혼합물, 착색제, 시리얼, 육류, 밀가루 등의 수입량이 많다.

<표 8> 에콰도르 식품가공산업 사업체 수, 판매량, 점유율 (2017)

품 목	사업체 수 (개)	총 판매량 (백만 $)	점유율 (%)
육류제품	85	$ 1,291.07	12.3
생선 및 기타 가공어육제품	104	$ 2,062.55	19.7
과일 및 채소제품	134	$ 520.36	5.0
동물 및 식물성 유지제품	37	$ 1,238.36	11.8
유제품	93	$ 692.00	6.6
분말제품	63	$ 292.44	2.8
전분 및 전분제품	2	$ 6.24	0.1
제방제품	70	$ 330.47	3.2
당류 및 당류 제품	10	$ 324.11	3.1
카카오, 쵸콜릿 및 과자류	60	$ 261.72	2.5
마카로니, 면류, 쿠스쿠스, 유사 곡식가루	24	$ 211.46	2.0
간편식	31	$ 8.78	0.1
기타 식품류	87	$ 851.90	8.1
애완동물 사료	71	$ 796.14	7.6
알콜성 음료	41	$ 89.48	0.9
와인	10	$ 16.73	0.2
맥주	21	$ 529.98	5.1
비알콜성 음료	75	$ 944.14	9.0
총 계	1,018	$ 10,467.94	100.0

자료: USDA(2017).

2.2. 식품유통시장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2019년 식품의 소매점 판매액은 254억 달러이고, 식품·음료 및 담배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154억 달러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식품의 소매점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했다. 에콰도르 유통구조는 재래시장이나 소형점포 등 전통적 유통 네트워크와 최신 쇼핑몰과 대형 슈퍼마켓 등 현대적 유통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식품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 각지의 모든 시장에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콰도르의 소매판매업체는 슈퍼마켓 체인, 재래시장, 체인점이 아닌 독립 식료품점, 소규모 식품점, 편의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9> 유통업체 브랜드별 점유율 (2012~2015)

단위: %

상호	회사명	2013	2014	2015
Supermaxi	La Favorita CA	9.1	9.4	9.8
Megamaxi	La Favorita CA	7.7	8.1	8.4
Hiper Market	El Rosado SA	6.0	6.6	6.9
Tia	TIA SA	5.4	5.9	6.1
Mi Comisariato	El Rosado SA	3.9	4.2	4.4
Aki	La Favorita CA	3.0	3.0	3.1
Gran Aki	La Favorita CA	2.5	2.5	2.7
Coral Hipermercados	Gerardo Ortiz Cia Ltda	2.5	2.3	2.3
Santa Maria	Maga Santa Maria SA	1.1	1.2	1.2
Super Aki	Favorita CA	_	0.9	0.9
Magda Supermercados	TIA SA	0.3	0.3	0.3
기 타		58.5	55.7	53.8
총 계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자료를 한국 식품 에콰도르 진출, 수입절차와 유통채널[6]에서 재인용.

에콰도르의 1인당 월간 식품비용 지출은 평균 250달러로 소비자의 47%가 식료품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한다. 한편, 고소득층 소비자의 대부분은 현대화된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매장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다양한 수입제품들이 판매되어 지고 있어 이용 소비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슈퍼마켓 체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고객층이 구분되어 지는데, 대형슈퍼마켓인 'Supermaxi'는 고소득층이 주요 고객이며,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Mi comisariato', 그 외 저소득층이 주요고객인 'Aki', 'Tia', 'Santa Clara' 등이 있다. 슈퍼마켓은 평균적으로 매장 진역대의 약 18%를 수입품(과일 및 채소, 음료, 스낵 및 냉동식품 등)에 할당하는 반면, 소규모 식품점은 주류, 스낵 및 청량음료와 같은 품목을 공급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슈퍼마켓 체인은 주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으며, 중소도시에는 브랜드명을 다르게 한 체인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에콰도르 식음료의 소매점 판매액 및 소비자 지출액 추이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234억 달러의 식품 소매 판매액은 2020년 264억 달러로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한국 식품 에콰도르 진출, 수입절차와 유통채널(https://blog.naver.com/chodangg123/221185310929) (검색일: 2020.2.25.)

<표 10> 에콰도르 식음료품의 소매점 판매액 및 소비자 지출액 추이 (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식품 소매 판매액 (십억 달러)	$ 23.4	$ 23.9	$ 24.6	$ 25.5	$ 26.4
식음료품 소비자 지출액 (십억 달러)	$ 13.8	$ 14.4	$ 14.8	$ 15.4	$ 16.2

자료: USDA(2020).

2.3.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에콰도르의 2018년 식품 및 농산물 수입액은 7억 5,300만 달러로 주요 수입대상국은 칠레(28.81%), 콜롬비아(14.14%), 미국(12.42%)의 순서이며, 주요 수입 농산품은 대두박(Soybean Meal), 밀(Wheat), 콩기름(Soybean Oil), 자당(Sucrose), 보리(Barley), 사료(Animal Feed), 간편 식품(Food Preparations), 낙과류(Deciduous Fruits), 옥수수(Corn), 귀리(Oats) 등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산 식음료의 소비촉진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에콰도르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한계와 기술력 부족으로 연중 생산이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많은 양의 식음료 수요를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입 가공식품은 △ 비알코올성 음료와 △ 분말 가공제품, △ 전처리 과채류 및 너트류 △ 초콜릿과 제과제품 등이다. 2016년 기준 비알콜성 음료의 수입액은 380만 USD로 주로 콜롬비아(25%), 멕시코(24%) 및 미국(22%)에서 수입하였으며, 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음료업체들은 수입제품들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분말 가공제품의 수입액은 2억 9,700만 USD로 칠레에서 53%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콜롬비아(10%), 아르헨티나(6%)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분말 가공제품의 수입관세는 20%-25%이다. 전처리 과채류 및 너트류의 수입액은 3,390만 USD로 역시 칠레(44%)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며, 페루와 네덜란드에서도 각각 12%씩 수입하고 있다. 초콜릿과 제과제품의 수입액은 4,890만 USD로 미국 제품의 인기가 높으며, 수입관세는 30%를 부과된다.

<표 11> 농산물 및 식품 수입 현황 (2015-2017)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수 입			구 분	수 입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조제사료	596.7	596.6	666.2	맥아전분	31.0	29.7	30.7
곡물	314.6	285.6	348.6	종자대두	25.0	24.2	28.8
기타조제	202.1	174.8	204.7	동물폐기	18.4	20.2	25.5
동식물유	144.9	128.2	147.2	산동물	26.1	26.2	23.4
과실견과	104.0	73.5	106.3	식물인경	13.4	15.6	19.0
곡물조제	102.6	83.9	104.5	커피차	12.6	15.4	15.1
당류설탕	68.3	59.0	91.7	낙농품	20.6	16.4	12.4
어패류	83.4	78.7	82.3	식물수액	8.9	7.0	8.0
음료주류	32.9	26.0	52.7	식용설육	12.6	5.8	6.9
채소뿌리	43.2	47.8	48.9	어육조제	5.5	5.1	6.5
과실조제	45.4	33.9	46.0	기타식물	0.7	0.6	1.3
코코아	29.6	26.1	33.0	담배	2.0	0.4	0.4
총 계					1,945	1,781	2,110

자료: USDA(2020).

에콰도르의 수입 식품 및 농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조제사료(Food Industry Residues & Waste; Prep Animal Feed)로 2017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31.6%를 차지하며, 곡물(Cereals) 16.5%, 기타조제(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9.7%, 동식물유(Animal Or Vegetable Fats, Oils Etc. & Waxes) 7.0% 등의 순으로 수입량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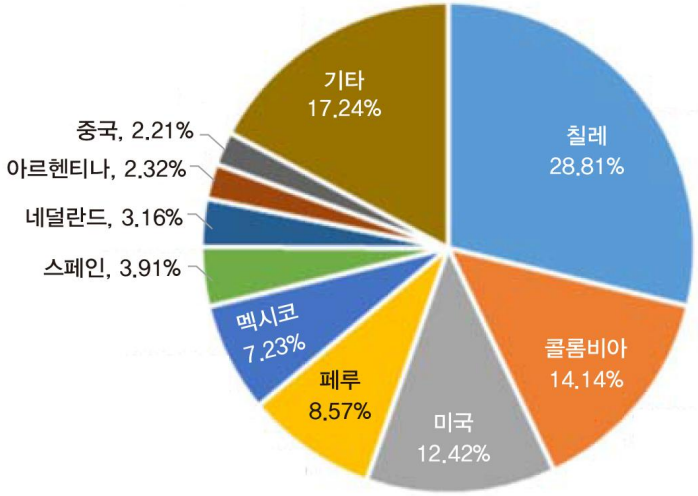
<표 12> 에콰도르 주요 식품 수입국 (2015-2017)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비율 (2017)	구 분	2015	2016	2017	비율 (2017)
칠레	196	162	208	31.0%	스페인	29	21	26	3.9%
콜럼비아	94	68	95	14.2%	네덜란드	15	19	22	3.2%
미국	90	64	83	12.3%	중국	21	18	18	2.6%
페루	87	63	61	9.1%	브라질	15	13	15	2.2%
멕시코	34	36	49	7.2%	이탈리아	15	9	13	1.9%
총 계						596	473	590	87.6%

자료: USDA(2020).

<그림 2> 에콰도르의 식품 및 농산물 주요 수입대상국 (2015-2017)



자료: USDA(2017).

에콰도르는 1996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에콰도르의 대외 무역법은 국내 상품거래 및 해외 무역, 자유 경쟁, 또는 생산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경제, 행정 또는 기술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식품 및 농산물의 제한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입 관세가 과도하지는 않다고 평가되지만 수입 규제 중 기술규제(technical barrier)와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는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일부 국가들은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가 식품 및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외환 유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 대외 무역법은 자유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무역을 방해하는 관행 또는 행정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WTO 규정 하에서 고려되는 경우에만 시정 조치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4. 남미지역 식품산업 동향

남미지역은 중산층 인구와 젊은층의 증가로 가공 식품과 음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층과 여성 직장인들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자 식품 트렌드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미의 호텔과 레스토랑 등 관광산업의 증가는 식품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빠르게 변하는 입맛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일과 채소 식재료에 대한 시장 수요 또한 형성되고 있다.

남미 시장의 과채류 절편(1차 가공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8억 달러였으며, 매년 4.37%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23.2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과채류 분말가공 시장은 2017년 기준 9억 달러 규모로 매년 3.95%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미의 과일 및 채소 식재료 주요 제조 및 유통사는 Dohler, Blue Macaw Flora, Sul Americano Naturals,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사로 특히, SouthAm-Santiago사(칠레 기반의 동결 건조된 수퍼푸드 생산업체)는 슈퍼 과일 기반 식재료로 마키베리와 아사이베리를 특징으로 하는 동결건조 과일 분말을 생산하는 새 라인을 설치하여 식재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남미에서 비만 경향의 증가로 유기농 제품과 영양 강화 제품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음료 제품의 소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인공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고품질의 과일, 채소 식재료에 대한 시장 수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2.5. 식품 관련 규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농림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ia, Acuacultura y Pesca, MAG)와 공중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MSP)에 있으며, 두 부처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자국산 및 수입산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사전 승인, 검사, 통제를 담당한다. 현행 규정은 2006년 제정된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Law)」을 기반으로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 변형식품의 개발, 사용, 거래(수입 포함)를 금지한다.

에콰도르의 「보건법(Health Law)」과 「식품규정(Food Regulation)」, 국가표준기관(INEN)의 「기술 표준 2074-96」은 식품 첨가물과 그 사용에 대한 규정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용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위생상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야만 식품 첨가물의 수입과 사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표준 NTE INEN 2074-96」은 코덱스 표준 및 FDA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표준은 허용되는 첨가제 목록, 허용 수준 규정 및 사람이 섭취할 수없는 금지 물질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농약의 조제, 제조, 수입, 거래 및 사용에 관한 법(The Formulation, Manufacture, Import,

Trade, and Use of Pesticides Law)」은 농약과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해 규제하는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법에 따라 농약의 화학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자체적인 농약 최대허용치를 설정하지 않고, 코덱스(CODEX)의 최대 잔류물한계(Maximum Residue Limits)를 적용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미국 환경 보호국 등)에서 설정한 다른 최대 허용 수준 또한 인정하고 있다. 농림축산부는 과도한 농약 또는 유사제품으로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농산물을 규제하며, 검사 결과 최대 잔류물한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확인되면 제품을 폐기한다.

에콰도르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보건부와 국가 위생 관리 및 규제 기관(ARCSA)에 의해 수행된다. ARCSA는 에콰도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위생 검사와 등록을 담당한다. 농림축산부 산하의 AGCALIDAD는 동식물 및 식품의 위생 규정 개발과 검사를 감독한다. 에콰도르 통계청(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Norms, INEN)은 식음료 제품의 라벨링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에콰도르 식품 라벨 규정은 적절한 모양과 용량 및 밀봉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 용기는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제품 보호, 보존 및 식별은 제품의 유효 기간 동안 보증되어야 하고, △ 각 제품 또는 제품 그룹에 대해 설정된 국가기술표준(NTE)을 충족해야 하며, △ 라벨은 포장재 또는 용기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3. 한국과의 관계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와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코레아 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경제발전경험공유, 전자통관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에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에콰도르의 수입 대상국 중 9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로 에콰도르는 총 6억 1,568만 달러의 한국 상품을 수입했다. 에콰도르의 주요 수입품은 기준 승용차

(2억 2,797만 달러), 자동차 부품(9,277만 달러), 액정디스플레이(2,974만 달러) 등이며,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새우(6,583만 달러), 바나나(3,536만 달러), 동괴 및 스크랩(1,737만 달러) 등이다.

최근 남미의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제품은 에콰도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에콰도르는 한류의 한류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는 나라로 한국 가수들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7] 특히, 화장품과 주류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인의 수요가 늘면서 기존의 바이어들이 정식으로 현지 식약처에 등록하여 대형마트로 유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현지인을 타깃으로 하는 한국식품 판매가 성장하고 있다.

<표 13>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2017)

수 출			수 입		
순위	구 분	금액 (천 달러)	순위	구 분	금액 (천 달러)
1	승용차	227,971	1	새우	65,826
2	자동차부품	92,775	2	바나나	35,360
3	액정디스플레이	29,747	3	동괴 및 스크랩	17,373
4	방송수신기	15,807	4	파이프, 밸브	1,521
5	폴리카르복시산	14,420	5	선박(어선)	1,298
6	플라스틱 용기	14,300	6	생선가루	835
7	냉동어류	14,039	7	코코아	677
8	건설중장비	11,970	8	커피류	630
9	의료 백신	11,814	9	어육	610
10	에틸렌중합체	10,783	10	알루미늄 스크랩	583
총 계		608,864	총 계		127,802

자료: USDA(2020).

2017년 라면과 과자 등 10건의 식약처 허가가 있었으며, 2018년에는 30건 이상의 한국식품 허가 절차가 진행되었다(KOTRA 2019). 한국음식과 함께 막걸리, 소주, 과실혼합주 등 한국산 주류에 대한 에콰도르 현지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한국 주류를 정식 수입하기

7) 한국 식품 에콰도르 진출, 수입절차와 유통채널(https://blog.naver.com/chodangg123/221185310929) (검색일: 2020.2.25.)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KOTRA 2019).

4. 시사점

남미 3대 석유 부존국가 중 하나인 에콰도르는 향후 한국과의 산업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동괴 및 알루미늄, 새우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에콰도르의 식품산업은 인구증가와 젊은 층이 이끄는 소비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정부의 체계적인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고, 자국산 식음료의 품질 및 가격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계적인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가공식품 산업의 에콰도르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콰도르는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진출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며, 코레아 전 정부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기업진출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장기적으로 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파트너로서의 협력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한국의 식품업체들은 에콰도르 진출 시 한류에 관심 갖고 있는 고객층을 시작으로 일반 고객에게 확산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며, 초기에는 에콰도르 주민들이 다양한 수입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수페르막시(Supermaxi), 하이퍼마켓(Hiper Market), 메가막시(Megamaxi)와 같은 고급 대형마트와 서민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키(AKI), 산타마리아(Santa Maria), 띠아(TIA 등의 유통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KOTRA 2019).

참고문헌

외교부. 2019. 「에콰도르 개황」. 외교부.

KOTRA. 2017. 「KOTRA 국가정보(에콰도르)」. KOTRA.

KOTRA. 2019. 「2019 국별 진출전략(에콰도르)」. KOTRA.

OECD. 2019.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9」. OECD.

USDA. 2017. 「Ecuador: Ecuador's Food Processors seeking U.S. Quality Ingredients and Bulk Products」. USDA.

USDA. 2019. 「Ecuador Food Processing Ingredients」. USDA.

USDA. 2020. 「Ecuador: Exporter Guide」. USDA.

USDA. 2020. 「Ecuador: FAIRS Country Report」. USDA.

World Bank. 2019. 「Doing Business 2019」. World Bank.

참고사이트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worldbank.org)

KOTRA 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에콰도르 중앙은행 (bce.fin.ec/en/)